SF드라마 <그리드>의 외삽적 가설과 극적 리얼리티

박미경*

〈차례〉

1. 들어가며
2. 통제와 보호의 장치로서 '그리드'의 공간
3. 통제와 구원의 장치로서 '타임머신'의 시간
4. 나가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SF드라마 〈그리드〉가 실제 세계를 재현하고 현실의 부조리를 반영하여 극적 리얼리티를 강화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그리드〉에서 극적 리얼리티를 강화하는 주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시대의 고도화된 과학 기술이 과학적 개연성을 수반한 SF의 가상 세계에 '실제 세계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게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드〉에서 자연 현상인 태양풍의 재난 상황을 배경으로 과학 기술 소재인 그리드(인공자기장)와 타임머신의 과학적 개연성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그리드〉의 외삽적 가설이 설득력을 발휘하게 됨을 구명하였다. 〈그리드〉가 현실감을 형성하기 위해 시각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그리드〉에서 태양풍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그리드와 그리드의 설치를 가능하게 한 타임머신 장치가 과학적 개연성으로 인해 〈그리드〉의 외삽적 가설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류를 보호하는 그리드와 타임머신이라는 과학 기술 장치가 이를 장악하여 인간을 통제하려는 권력에 의해 이중적으로 기능한다는 극적 상상력은 현실을 재현하고 현실의 부정성을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각적 연출을 통해 현실감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그리드〉는 도래하지 않은 미래 사회에 대해 과학적 개연성이 있는 외삽적 가설을 바탕으로 현실감을 형성하고 극적 리얼리티를 강화하여 SF로서 차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그리드, 극적 리얼리티, 드라마 〈그리드〉, 보호, 외삽적 가설, 타임머신, 태양풍, 통제

www.kci.go.kr

*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1. 들어가며

2022년 디즈니+에서 스트리밍된 <그리드>[1]는 과학 기술 장치 그리드(인공 자기장)와 타임머신을 중심 소재로 지구자기장이 사라진 재난 상황을 가상한 SF드라마다.

SF는 장르적 특성으로 인해 순수문학과는 별도의 장(場)에서 논의 되어 왔다. SF가 전통적인 리얼리즘적 서사 작법-재현이나 반영과 같은-이나 세계관과는 상이한 문학적 공식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2] 2010년대 중반 이후 SF장르에 대해 정리한 연구들에서 고장원, 노대원, 장정희, 이지용은 "SF란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사고실험"으로 현재와는 다른 낯선 미래를 구현하는 문학 장르이며, 이때 과학적 상상력은 괴생물체, 시간여행, 대체역사 등 비현실적인 요소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3] 그러나 SF가 현실을 재현하고 이를 반영하면서 사회적 의미를 생성한다면 순수문학과 여전히 구별되는가?

SF드라마 <그리드>가 과학기술 소재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현실을 재현하면서 불합리한 현실을 투영하고 있는 점은 본 연구의 문제 제기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에 본고는 <그리드>에서 개연성 있는 과학 기술에 대한 극적 상상력이 문제적 현실을 재현함으로써 SF에서 극적 리얼리티를 강화하고 있음을 구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와 관련해서 SF 장르에 대한 최근 연구로 노대원[4]은 'SF는

---

1) 이수연 극본, 리건 연출, SF드라마 〈그리드〉 10부작, 디즈니+, 2022.

2) 복도훈, 「SF, 타자성을 탐구하는 사고실험의 미학: 스타니스와프 렘의 SF 『솔라리스』(1961)를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통권27호,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2017, 9면.

3) 고장원, 『SF란 무엇인가?』, 부크크, 2015. 198-250면 ; 노대원, 「SF 장르의 특성과 융합적 문학교육」, 『영주어문』 42권0호, 영주어문학회, 2019, 230면 ; 장정희, 『SF 장르의 이해』, 동인, 2016. 51-71면 ; 이지용, 「한국 SF의 장르적 특징과 의의—근대화에 대한 프로파간다부터 포스트휴먼 담론까지」, 『대중서사연구』 통권50호, 대중서사학회, 2019. 36-64면.

과학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서사 장르'로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 때문에 SF와 현실 간의 차이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하였다. 노대원은 SF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도전적인 사유를 제기하는 노붐(novum) 등을 통해 철학적 논쟁과 사회적 성찰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SF드라마에 대한 연구로 신다슬[5]은 <만신>에서 과학 기술인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의 경계에서 인간의 미래에 대해 논하였다. 이다운[6]은 <간호중>과 <우주인 조안> 분석에서 포스트휴머니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인 <그리드>에 관한 연구로는 아직까지 한 편만 확인되었다. 안신영·신서유[7]는 <그리드>에 나타난 인물들의 욕망과 결핍 그리고 시공간 이동의 서사를 미장센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SF의 외삽법에 대한 연구로 김홍대·윤석진[8]은 SF콘텐츠의 본질에 대해 천착하여 SF 특징으로서 외삽적 가설의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현재 과학 기술의 고도화로 SF에서 과학 기술과 소재는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SF의 세계는 현실의 삶 가까이에 도래해 있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타임머신>에 등장해 20세기 최고의 노붐을 일으킨 타임머신이 현재의 SF 수용자에게도 여전히 노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그리드>의 중심 소재로서 서사를 이끌어가는 그리드와 타임머신 장치는 더 이상 '경이로운 낯섦'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4) 노대원, 위의 글, 227면.
5) 신다슬, 「불안정한 세계에서 능동적 삶의 가능성 모색하기-SF드라마 〈만신〉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82호, 한국비평문학회, 2021.
6) 이다운, 「일상의 파국과 상상된 재난-시네마틱드라마 〈SF8〉연구」, 『어문론집』, 중앙어문학회, 2021.
7) 안신영·신서유, 「SF드라마 〈그리드〉에 나타난 욕망 분석-미장센 분석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42권,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3.
8) 김홍대·윤석진, 「과학 기술의 상상적 구현과 표상으로서의 SF콘텐츠」, 『인문학 연구』 127,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32면.

배경으로 과학적 개연성이 있는 중심 소재를 활용한 <그리드>가 노붐(Novum)[9]을 통해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제시하[10]거나, '인지적 소외'를 일으켜 현실을 창의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해 온[11] SF의 공식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이다. SF로서 <그리드>의 과학 기술 소재가 일상에 익숙한 과학 지식 혹은 과학적 개연성을 수반한 과학 기술인 점은 자기장이 파괴된 지구를 상상하고 인공 자기장을 설치하기 위해 타임머신을 활용한다는 외삽적 가설에 개연성을 부여하며 극적 리얼리티의 전제가 된다.

본고의 목적은 <그리드>에서 개연성 있는 과학 기술에 대한 극적 상상력이 문제적 현실을 재현함으로써 SF에 극적 리얼리티를 강화하고 있음을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연 현상인 태양풍, 그리드와 타임머신이라는 과학 기술 소재의 과학적 상상력이 서사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점과 극적 상상력으로서 그리드와 타임머신이 수행하는 보호와 통제의 이중적 기능이 현실을 재현하고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그리드>에 표현된 슬로모션, 롱 테이크와 스펙터클과 같은 시각적 기법도 현실감을 강화하는 요소임을 살펴보겠다.[12] SF는 '외삽법(外揷法, extrapolation)'을 통해 미래와 변화 상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데,[13] <그리드>가 과학기술의 개연성으로 인해 외삽적 가설이 설득력을 발휘하고 현실감을 형성하는 것을 2장의 그리드, 3장의 타임머신과 연결 지어 살펴

9) 노붐이란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 사이에서 차이를 불러일으킬 촉매제로 작용할, 텍스트의 세계에 도입된 새로움을 의미한다. 인지적 소외는 노붐의 효과로 이루어진다.(세릴 빈트, 전행선 옮김, 『에스에프에스프리-우리가 SF를 읽을 때 생각하는 것들』, arte, 2019, 89면.)

10) Suvin, Darko, *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On the Poetics and History of a Literary Genre,* New Haven: Yale UP, 1979, p.10.

11) 세릴 빈트, 앞의 책, 67면.

12) '편집된 현실'을 '실제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극적 장치 유무에 따라 현실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윤석진, 「TV드라마의 현실성(reality) 확보 방식 고찰 -KBS 미니시리즈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중심으로- 」, 『한국극예술연구』 제21집, 한국극예술학회, 2005, 318면.)

13) 노대원, 앞의 글, 230면.

www.kci.go.kr

보겠다. 또한 2장과 3장에서 <그리드>의 과학 기술이 인류를 보호하는 절대적 장치로서 기능하지만, 인류를 통제하며 자본과 기술 권력에 의한 현대 사회의 위계화를 재현하고 문제적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현실을 환유하고 있음을 분석하겠다. 이와 함께 2장에서 그리드 관리국의 안과 밖에 작동하는 권력의 문제를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14]을 원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통제와 보호의 장치로서 '그리드'의 공간

<그리드>는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사라진 전 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정체불명의 '존재'가 나타나 지구 방어막인 '그리드'(인공 자기장)를 창시했다는 설정으로부터 출발한다.[15] 지구의 생명 유지에 절대적인 자기장이 사라진다는 설정은 지진,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와 연결되어 실제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기시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과학 기술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이 가능한 인공 자기장 소재는 <그리드>의 가상 세계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현실과의 접점 역시 시사한다. SF의 가상

14)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03.

15) 인공 자기장 설치 후 24년 만에 그리드 창시자가 다시 나타나 살인마 김마녹(김성균 분)을 돕는다. 그리드 관리국의 직원인 주인공 새하(서강준 분)와 경찰, 그리드 관리국의 수뇌부, 군인 등은 '유령'으로 지칭되는 정체불명의 그리드 창시자를 각자의 목적으로 추격한다. 정체불명의 존재는 미래에서 온 인간으로 타임머신 장치를 가지고 시공간을 이동한다. 주인공 새하(서강준 분)는 경찰인 새벽(김아중 분)의 도움으로 미래에서 온 인간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그의 시간 이동 장치를 손에 넣는다. 과거로 돌아간 새하는 그리드 설치 당시 살해된 아버지를 살리고 과거를 바꾼다. 그러나 바뀐 과거로 인해 그리드는 사라지고 인류는 태양풍의 위험에 처해 큰 피해를 입는다. 이에 주인공 새하는 자신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인류를 위해 그리드가 있는 세상을 선택한다는 서사가 중심 플롯을 이룬다.

세계가 비현실적 판타지와 다르게 현실 세계를 인식하게 하며 과학적 지식으로 인해 현실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SF의 개연성은 과학적 개연성이다.[16] 이러한 과학적 개연성은 SF에서 설득력 있는 '외삽적 가설' 수행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존 W. 캠벨 2세가 "판타지와 SF의 구별을 위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외삽적 예측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이래[17] SF의 특성으로 과학 이론의 외삽법이 주목 받아왔다. '외삽법'은 과거의 경험과 변화에 근거하여 축적된 지식들의 경향성을 분석하여 경험 또는 실험하지 못한 경우를 합리적 논리로 예측하는 기법이다.[18] 이때 기존의 축적된 지식이란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구성된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 과학 기술에 대한 이론과 방법, 역사적 경험에 대한 지식, 미래의 현실에 대한 합리적 예측으로 외삽을 수행하기 위한 사실이나 정보, 자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에 의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건들에 대한 현실적 추측"에 해당하는 '가설'이 수립될 수 있다.[19] 경험하거나 실험하지 않았음에도 외삽법은 현대의 고도화된 과학 기술과 충분한 지식으로 인해 수용자로 하여금 미래에 있을 법한 실제 현실 세계와 연관된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드>에서 태양풍의 재난 상황과 이를 방어하는 인공 자기장, 인공 자기장의 설치를 가능하게 한 타임머신에 대한 외삽적 가설이 과학적 개연성으로 인해 미래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설득력을 발휘하는 이유이다. 이와 더불어 <그리드>는 시각적 연출 기법을 통해 과학적 개연성을 수반한 외삽적 가설에 현실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외삽적 가설의 주요 구성 요소인 태양풍의 재난 상황이 과학적

16) 신다슬, 「한국 SF 영화의 세계관과 과학적 개연성 -〈승리호〉와 〈정이〉를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126면.
17) 〈어스타운딩 스토리즈〉의 편집장 존 W. 캠벨 2세가 1947년에 SF에 대해 한 유명한 발언이다. 이후 비평가와 작가들에 의해 SF의 특징적 기법으로 사용된다.
18) 노대원, 앞의 글, 230면.
19) 김홍대·윤석진, 앞의 글, 32면.

www.kci.go.kr

개연성을 확보하여 <그리드>의 가상 세계에서 현실감을 강화하고 있음을 살펴보겠다. 태양은 지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태양풍, 즉 엄청난 양의 고준위 방사선을 쏟아내고 있다. 태양풍에 직접 노출되면 생명이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는 대기와 물이 지표면에서 사라지게 되어 죽음의 행성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 지구는 태양풍을 방어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이다. 만일 지구 자기장이 한 순간에 사라진다면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 실제 화성의 경우가 약 30억 년 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20] 태양풍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매우 강한 방사선을 맞는 것과 동일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의미이다. 과도한 방사선 노출은 유전자 변형, 암 발생률을 높인다.[21] 가장 강한 수준의 태양풍은 10억 개의 핵무기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다.[22]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방사선 피폭 희생자의 참상으로부터 태양풍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20) Acuna, M.H., et al.,"Magnetic Field and Plasma Observations at Mars: Initial Results of the Mars Global Surveyor Mission", *Science*, 1998, pp. 1676-1860 참조.
21) Sanders, Jacob T., et al.,"Radiation-induced DNA damage and repair effects on 3D genome organization", *Nature Communications*, 2020, pp. 1-14 참조.
22) Fox, Karen C., "Solar Flares: What Does It Take to Be X-Class?", 2011. https://svs.gsfc.nasa.gov/10833 (최종검색일 : 2023.12.18.)

www.kci.go.kr



〈장면 1〉



〈장면 2〉



〈장면 3〉

위 장면들은 주인공 새하(서강준 분)에 의해 그리드가 없는 세상으로 뒤바뀌게 된 현실에서 태양풍의 피해를 시각적으로 연출하였다. 전자파와 방사능 피해는 과학적 개연성을 통해 극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더해 현실감을 강화하고 있다. <장면 1>(9화 2분 38초)은 전자파와 방사능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새하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새하가 목격하는 장면이다. 태양풍으로 인해 피부가 괴사되고 안구가 없는 사람들을 슬로모션으로 시각화하여 자연 재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슬로모션은 수용자로 하여금 눈

www.kci.go.kr

앞의 사건이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23] <장면 2>(1화 3분 12초)는 태양풍의 영향으로 오로라가 발생하는 장면으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화려한 스펙터클을 보여주고 있다. 갑작스런 오로라의 등장은 평범한 일상이 전 지구적 자연 재난으로 인해 변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장면 3>(7화 25분 35초)은 지구 자기장 교란에 따른 통신 장해가 발생하여 막대한 산업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슬로모션이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배가시키며 수용자로 하여금 위기를 실감하게 한다면, 재난 상황을 롱 테이크로 보여주는 것은 자기장 붕괴로 인한 재난의 현실감과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극적 장치이다. 슬로모션과 롱 테이크를 활용한 재난 상황의 시각화, 스펙터클의 현실감[24] 은 과학적 사실들과 맞물려 강한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출 기법이다.

다음에서 <그리드>의 중요 과학 기술 소재인 '그리드'의 과학적 개연성을 살펴봄으로써 <그리드>에서 외삽적 가설이 개연성을 획득하게 됨을 구명하겠다. <그리드>에 구현된 과학기술인 '그리드'는 현재 인공 자기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현실의 세계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NASA와 여러 천문학자들은 화성에 인공 자기장을 형성하여 태양풍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화성과 태양 사이에 강력한 자성을 가지는 자기구(Magnetosphere)를 위치시키면 화성으로 향하는 태양풍 유입이 줄어들게 되어 화성 대기 복원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성 대기압과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25]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는 <그리드>의 지구 자기장 소실과 인공 자기장이 설치된 지구라는 외삽적 가설에 개연성을 부여하며 현실에 실재할 수 있다는 설득력을 발휘한다. 이로써 그리드가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전장치라

23) 이승조, 「방송 영상물에 사용된 슬로모션이 수용자의 정서 및 인지 반응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통권 22-4호, 한국방송학회, 2008, 264면.
24) 김홍대·윤석진, 앞의 글, 36면.
25) Green, J.L., et al.,"A Future Mars Environment for Science and Exploration", *Planetary Science Vision 2050 Workshop*, article no. 1989, 2017.

www.kci.go.kr

는 설정과 중심 플롯은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드라마 <그리드>는 정체불명의 미래에서 온 인간이 그리드를 설치 후 24년이 지난 현재의 시간에서 시작된다. 드라마 속 '그리드'[26]는 인류를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인 만큼 '그리드가' 설치된 후 전파연구소는 그리드 관리국으로 승격된다.



〈장면 4〉

<장면 4>(8화 13분 14초)는 태양풍의 전자파와 방사능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그리드가 설치된 안전한 세상을 시각화하고 있다. 벽에 그려진 선명한 격자무늬(그리드)는 그리드를 지시한다. 그리드가 있는 세상은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세상으로 인류에게 빛이 생명의 근원이듯 생존의 공간이다.[27] 노란 안전판도 그리드가 보호하는 안전한 삶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리드는 이를 장악하고 관리하는 과학 기술 권력에 의해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하는 장치로서 이중적으로 기능한다.

그리드 관리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중심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실제 그리드의 창시자는 정체불명으로 관리국에 의해 '유령'으로 지칭된다. 그리드가 창시되는 과정에서 전파연구소에 침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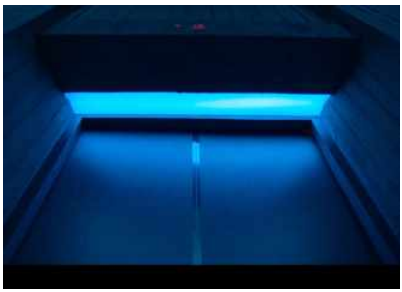
26) 드라마 〈그리드〉에서 그리드(Grid)는 인공 자기장을 말한다. 그리드의 사전적 의미인 '격자무늬'의 선은 드라마의 공간에서 인공 자기장을 상징한다.
27) 강성률, 『영화 색채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5면.

한 '유령'을 저지하려던 새하의 아버지(당시 전파연구원)와 청소부였던 김마녹(김성균 역)의 아버지가 죽는다. 새하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그리드 관리국의 직원이 된다. 그리드가 가져다준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국 수뇌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에 대한 정보를 극비에 부친다.

그리드 관리국의 기술과 지식 및 정보는 외부와 내부에서 권력의 재(再) 강화에 기여하는 구조이다. 특히 관리국 내부의 공간들은 권력 집단 내에서의 이중적 위계화를 드러낸다. 정보 또한 과학 기술의 산물로서 이를 장악하고 있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이 위계를 이루며 공간의 대비를 통해 형상화된다. 미셸 푸코는 유기적으로 배치되고 내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공간과 수용된 사람들을 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한 공간의 문제를 지적한다.[28] 이는 권력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공간은 수용되는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행위를 지배한다. <그리드>에 나타난 분할된 공간은 사회적 관계에 의한 배치이며, 등장인물들이 겪는 소외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둘러싼 권력의 문제[29]임을 환기한다. 그리드는 태양풍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장치인 동시에 이를 장악한 권력에 의해 위계화를 이루며 통제의 장치로 이중성을 갖는다.

28) 미셸 푸코, 앞의 책, 270-271면.
29) 연효숙, 「푸코의 바깥의 공간과 헤테로토피아 공동체」, 『시대와 철학』 통권 99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2, 106면.

www.kci.go.kr



〈장면 5〉

<장면 5>(3화 14분 25초)는 관리국 내부의 위계화된 공간을 시각화하였다. 견고하게 통제된 문을 카메라의 앙각으로 촬영하여 위압감을 자아낸다.[30] 상층부로 통하는 문은 엄격하게 차단된 채 하층부와 분리되며 이는 수직적 위계를 드러낸다. 상층부 정보실의 '제한구역'이란 문구는 이곳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정보 권력의 공간임을 의미한다. 평직원인 새하가 부국장의 지문을 도용하기 전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었던 배타적 공간이다.



〈장면 6〉

30) 앙각은 위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공포감, 경외심, 존경심을 자아내게 한다. (김종무, 「카메라 앵글의 위치 변화에 따른 감성 선호도 변화」, 『디자인융복합연구』 9권1호, 디자인융복합학회, 2010, 16면.)

<장면 6>(5화 11분 17초)은 그리드 관리국 내부의 견고한 벽과 통제된 공간을 시각화한다. 관리국의 두껍고 견고한 벽과 복도, 출입을 통제하는 지문 인식 장치, 텅 빈 공간과 꽉 찬 공간, 사각 공간을 찾을 수 없는 CCTV 등은 위계 질서화하거나 감시하는 공간들이다. 내부 공간을 분할하는 두꺼운 벽은 계층과 계급의 경계를 의미하며 견고한 경계는 허물기 어렵다. 출입이 통제된 문은 권력으로부터 배제를 상징하며 위계 질서화된 공간은 내부의 사람들 스스로 권력에 예속되도록 작동하며 공간 배치와 CCTV 등에 의해 가시화된 일상은 통제된다.



〈장면 7〉



〈장면 8〉

www.kci.go.kr

그리드 관리국 내부에 그리드 조정실과 사무국이 같은 층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두 공간에서 기술과 지식 및 정보 권력에 의한 위계화와 배

제가 조정실과 사무국의 공간 대비를 통해 형상화된다. <장면 8>(1화 35분 29초)의 텅 빈 사무국과 대조적으로 <장면 7>(1화 9분 52초)은 꽉 찬 그리드 조정실이다. 사무국의 텅 빈 공간은 타자화의 기표이다. 그리드 관리국이 재현하는 기술 중심 사고는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는 사회의 기저에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성과물이다. 사무국 직원에 대한 조정실 직원들 및 관리국 수뇌부와 정부 관료의 노골적 무시는 직장 내 위계화된 서열 의식을 드러낸다. 직원들의 업무는 상품 교환이나 매매와 같이 몰인격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관리국은 성과주의에 경도되어있다.[31] 그러나 그리드 조정실의 꽉 찬 공간에서도 직원들은 일하는 기계와 같이 대상화된다. 책상 위의 빵 봉지들은 식사 시간이 따로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조정실 직원들을 조명한다.

또한 <장면 8>의 그리드 관리국 내 사무국은 감시와 통제로 압축된 권력의 도식을 보여준다.[32] 부국장은 중앙 높은 곳에서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한다. 등 뒤로 느껴지는 부국장의 시선은 직원들을 통제한다. 통제의 다른 이름은 권력이며 억압이다.[33] 사무국의 공간 배치는 판옵티콘을 연상시킴으로써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 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에 직원들을 놓이게 한다. 감시 작용이 중단되더라도 규율 권력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권력 행사의 현실성을 약화시키면서 권력의 완전한 상태를 강화하도록 만든다. 이렇듯 <그리드>는 공간에서 관리국 내부의 자유로울 수 없는 통제되고 경직된 사회 체제를 공간의 배치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타임머신을 탈취해 과거를 수정한 새하로 인해 그리드가 없는 세

31) 이승길, 「성과주의 인사와 근로계약에 대한 연구」,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341면.
32) 미셸 푸코, 앞의 책, 10-13면 참고.
33) 자크 라캉, 자크-알랭 밀레 엮음, 맹정현·이수련 옮김, 『세미나 11』, 새물결, 2008, 470면.

www.kci.go.kr

상이 된다. 그리드가 없는 세상에서도 고도의 과학 기술은 자본 권력을 창출하고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자본 권력 중심으로 재편한다. 태양풍의 재난 상황은 새로운 과학 기술 개발을 촉발하고 새하 네는 과학 기술이 가져다준 자본가의 부유한 삶을 획득한다.[34] 새하 가족은 전자파와 방사능을 차단하는 보호막 안에서 생활한다. 자본가의 보호막은 개인용 소형 그리드를 의미하며 자본가인 새하 가족은 배타적 공간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보호막 밖의 세상은 태양풍의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공간이다. <그리드>는 현대 사회에서 자본과 자본 권력이 새로운 위계화를 형성하는 현실을 재현한다.



〈장면 9〉



〈장면 10〉

<장면 9>(7화 41분 52초)에서 유리 천정의 격자무늬는 그리드를 상징하며 소형 그리드(보호막) 안은 안전한 공간이다. 기술 자본이 창출한 자본 권력은 사회 제도와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본가 계급과 보호막 바깥의 배제된 삶을 분리하고 위계화한다. <장면 10>(7화 37분 30초)의 보호막 밖 세상은 플래카드의 'DISTOPIA NOW, 우리는 지금 멸종을 향해 가고 있다'는 문구와 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삶이 있다.

34) 새하 아버지 권수근 박사는 방사능 요오드로 방사능 치료제 SOLPA를 개발하여 큰 부를 축적한다.

www.kci.go.kr

보호막 밖의 배제된 삶에 주목하는 <그리드>는 그리드 설치 과정에서 희생당한 청소부의 아들 마녹의 존재를 비추며 현대 사회의 아브젝트(abject)[35]들을 주시한다. 마녹은 제도권 밖으로 배척된 '유령'과 같은 존재이다. 미래에서 온 인간이 그리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마녹은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도하고 그 충격으로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 사회의 법과 제도는 마녹을 '부존재자'로 배치하고 배척한다. 마녹은 범죄와 살인을 저지르고 사회에서 혐오와 두려움, 기피의 대상으로 떠돈다. 그는 살기 위해 훔치고, 도망치기 위해 사람을 죽인다. 드라마에서 지하에 갇힌 살인자 마녹이 바깥세상을 향해 '사람 살려'를 외치는 장면은 사람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면의 표현으로 역설적이다. SF텍스트는 그 사회가 타자를 인식하고 있는 무의식을 투영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 내재되어 있는 편견이 드러나게 한다.[36] <그리드>에서 과학 기술 장치 그리드는 법, 사회 제도 등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안전한 공간을 상징한다. 반면 <그리드>는 그리드를 소유하고 통제하여 권력을 장악하려는 세력으로 인해 법과 제도 등 사회로부터 배제된 삶을 환기한다.

이처럼 고도의 과학 기술 장치 그리드는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지만, 이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권력은 인간을 배제한다. 그리드 관리국은 단순히 내러티브의 배경으로서 뿐만 아니라 막강한 배타적 권력의 상징이다. 관리국 내부와 외부의 분할된 공간들은 권력 집단 내에서의 이중적 위계화를 형상화하며 기술 자본 권력으로부터 배제되고 배척된 제도권 밖의 삶을 조명하여 현대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계급 계층화의 문제적 현실을 재현한다.

35)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0-25면.
36) 이지용, 앞의 글, 59면.

www.kci.go.kr

3. 통제와 구원 장치로서 '타임머신'의 시간

<그리드>는 그리드 설치와 관련하여 미래에서 온 인간을 등장시킨다. 타임머신을 이용해 미래에서 과거로 왔다는 설정은 SF로서 <그리드>에 흥미를 일으키는 모티프이다. 타임머신은 현대의 과학 기술로는 구현되지 못한 장치이지만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블랙홀과 연결된 웜홀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아인슈타인은 블랙홀과 웜홀이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시공의 터널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37] 킵 손 교수는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웜홀을 안정되게 만들 수 있고 양자역학적으로 그러한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38] 이처럼 물리학자들이 시간 여행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리드>의 시간 여행은 과학적 설득력을 갖춘다.



〈장면 11〉



〈장면 12〉

<장면 11>(6화 37분 18초)은 미래에서 온 인간의 팔에 이식되어 있던 전자칩을 감마레이 검사로 찾아내는 장면이다. 이 칩이 뇌에서 보내는 신

37) Einstein, A. Rosen, N., "The Particle Problem in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Physical Review,* Volume 48, 1935.7, pp. 73-77.

38) Thorn, Kip S., Morris, Michael S., "Wormholes in spacetime and their use for interstellar travel: A tool for teaching general relativity", *American Journal of Physics,* Volume 56, 1988.5, pp. 395-412.

경 신호를 전자 신호로 바꾸어 주고 외부의 이동 장치가 이것을 다시 운동 신호로 바꾸어 시간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정은 초능력이나 판타지적 타임슬립과 구분되는 합리적 지식에 근거한다. <장면 12>(7화 9분 7초)는 새하가 자신의 팔목에 전자칩을 이식하고 칩과 연결된 시간 이동 장치를 탈취하여 시공간을 이동하는 장면을 시각화한 것이다. 타임머신 장치의 과학적 개연성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스펙터클은 현실감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드>는 지구자기장이 파괴된 SF의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가상하고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인공 자기장 그리드와 그리드 설치를 위한 방법으로 타임머신 장치를 설정한다. 가공할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절대적 보호막인 그리드는 타임머신으로 인해 미래의 인간이 과거로 돌아가 설치할 수 있었다. 그리드를 설치 가능하게 한 타임머신은 인류 구원의 장치이자 새하가 간절히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되찾는 길이다. 태양풍의 재난 상황에서 그리드 설치를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타임머신은 과학적 개연성으로 인해 외삽적 가설에 개연성을 수반할 뿐 아니라, <그리드>의 서사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장치이다.

그리드 설치 당시 아버지를 잃었던 주인공 새하는 사건 당일로 돌아가 아버지를 살리고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유령의 타임머신을 필사적으로 탈취한다. 자신을 막아서는 정새벽 형사를 향해 새하는 다음과 같이 소리친다.

> 새하: 그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부국장님도 다 살릴 수 있어요.
> 내가 어떤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당신은 몰라.
>
> (6화 49분 10초)

www.kci.go.kr



〈장면 13〉



〈장면 14〉

드라마에서 시간이 정지된 듯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어머니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 과거에 집착하는 새하 모두에게 현재와 미래의 시간은 부재한다. <장면 13>(5화 26분 28초)과 <장면 14>(5화 24분 54초)에서 새하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과거에 예속된 주체로 성장했을 뿐 진정한 주체로의 전환[39]을 이루지 못한 모습이다.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의 삶에 현재가 없는 것처럼 새하의 삶은 과거에 머물고 있다. 과거를 되돌려 현재를 수정하고자 하는 새하는 시간을 통제하고 소유하기 위해 정부와 관리국에 맞선다. 새하는 과거를 수정하는 것만이 현재의 행복이라는 내부의 코드에 갇혀 있다. 이런 새하에게 타임머신은 과거의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드>의 과학 기술 장치 타임머신은 현실에 대한 결핍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되돌리려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구원의 장치이다. 과거의 사건에 매몰된 사람일수록 타임머신은 만능의 구원 장치로 인식될 것이다. 사람들은 타임머신을 이용해 각기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 시간을 통제하고 소유하려 한다. 따라서 타임머신에는 권력이 내재한다. 타임머신은 미래 과학 기술의 결정체로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삶

www.kci.go.kr

39) 미셸 푸코, 심세광 옮김,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168면.

을 재분배하며 권력을 장악한 인간은 시간을 재분배한다. 현대 자본주의는 시간을 공간화하여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 시간에 통제당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시간을 탐구하며, 시간을 소유하고 시간을 통제하며 이를 통해 인간을 통제하고자 욕망해 왔다. <그리드> 속 타임머신 서사는 권력의 강화, 권력의 재분배라는 역학 속에서 전개된다.

그리드를 설치하기 위해 과거로 왔던 '인간'은 24년 만에 다시 나타난다. 그리드를 없애고 새로운 권력을 장악하려는 또 다른 미래 인간들로부터 그리드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드라마에서 관리국의 수뇌부와 정부 인사는 타임머신 장치로 시공간을 이동하는 인간을 잡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 그러나 이들이 지칭하는 '유령'은 미래에서 온 인간이다. 관리국과 정부는 전자칩을 이식한 인간이 타임머신 장치를 이용하여 시공간을 이동하자 인간과 다른 '타존재-유령'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관리국과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리드 설치에 관한 진실을 은폐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들이 지칭하는 '유령'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비체(abject)이며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다. 미래에서 온 인간은 그리드가 설치된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자 관리국을 무너뜨릴 힘을 가진 '진실'이다.



〈장면 15〉

www.kci.go.kr

<그리드>에서 관리국이 존재를 은폐하고자 하는 미래에서 온 인간은 타임머신 장치를 이용해 정치권력과 자본이 결탁하고 있는 현실의 부정성 또한 폭로하고 있다. <장면 15>(2화 42분 54초)는 '유령'이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현장에서 빼앗은 부정한 돈을 시각화한 것으로 <그리드>는 부패한 권력을 누설한다.

정부와 관리국이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위해 '유령'을 잡으려는 표면적 목적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공권력을 동원하는 정부와 관리국은 치안과 시민 보호에 소홀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한다. 막강한 그리드 관리 업무로 기득권을 획득한 관리국과 정부는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닫힌 미래를 고수하려 한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타임머신 장치를 장악하는 것만이 이들의 목적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그리드 창시국으로서 국제 사회를 선도해 왔다. 정부와 관리국은 미래에서 온 인간에 의해 그리드가 설치된 사실이 밝혀지는 걸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 이들에게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타임머신은 권력을 유지할 새로운 무기이다.



〈장면 16〉

<장면 16>(10화 14분 14초)은 태양풍의 엄청난 위력을 알고 있는 미래에서 온 인간이 곧 닥치게 될 자연 재난을 앞두고 공원의 한가로운 일상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미래에 닥칠 일을 모르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www.kci.go.kr

사람들과 끔찍한 미래를 알고 이를 막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는 '유령'의 모습을 슬로모션과 롱 테이크로 대비시킨다. 드라마 속 인물들 간의 정보차이와 수용자와 드라마 속 인물간의 정보차로 발생하는 긴장감의 고조는 미래 권력을 유지하려는 집단의 비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유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새하와 미래에서 온 인간이 자신들이 원하는 현재를 위해서 과거를 수정하면 시간에 잠재된 사건들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을 초래한다. 자신들로 인한 타인들의 불행은 자신들이 과거를 바꾼 일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그리드>에 나타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은 인물들의 자기 반영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협소한 삶만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시선으로 확장된다.

반면 타임머신을 손에 넣은 관리국 국장과 정부 관료는 타임머신을 빼앗긴 인간을 사이에 두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인간을 비인격체로 대상화한다. <그리드>는 관리국 수뇌부와 정부 인사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해 인간을 도구나 수단으로 대상화하는 위계화된 사고를 투영하고 있다. 이들에게 미래에서 온 인간은 타임머신, 즉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기계 장치에 불과하다. 타임머신과 분리된 인간은 존재의 가치를 잃는다. 그리드 설치를 위해 미래에서 온 포스트휴먼이 인간으로 등장하는 설정은 SF로서 <그리드>에서 포스트휴먼 담론보다 실존적 인간의 도구화라는 부정성에 집중하게 한다.[40] <그리드>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 권력, 자본 권력이 인간을 도구화하여 통제의 대상으로 위치시키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40) 2016년 알파고 이후 한국 SF드라마에 등장한 포스트휴먼은 사이보그, 로봇, AI, 홀로그램 등 과학기술에 의해 현대인과 다른 인간유형으로 변형되는 경향을 보이며 인간과 다른 포스트휴먼에 대한 윤리적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장면 17〉

<그리드>는 관리국과 정부가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인간을 도구화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시즌 II를 향한 포석으로서 드라마의 말미에서 타임머신 장치를 가진 또 다른 미래에서 온 인간을 등장시켜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재폭로한다. <장면 17>(10화 22분 49초)에서 그리드를 설치하고 보호하려고 온 인간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쫓아 온 또 다른 인간이 시공간을 넘나들며 맞서고 있다. 그리드를 설치하려는 쪽과 이를 저지하여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려는 세력이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과거를 통제하고 조정하고자 대항한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의 시간이다. 인간이 쟁취하고자 했던 권력은 인간의 유한한 시간성으로 인해 영속될 수 없다. 시간을 통제하고 소유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과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역사는 유한한 인간 존재의 실증이다. 영상에서 과거로 온 두 시간 여행자를 통해 권력 다툼의 역사를 시각화하고 있다.

인간은 현재의 불만족한 현실을 수정하기 위해 과거로의 여행을 꿈꾼다. 이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과학 기술 장치인 타임머신의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타임머신이 환유하는 <그리드>의 시간 여행 서사는 인간 욕망을 재현한다. 인간의 욕망은 타임머신을 이용해 과거를 수정하고

www.kci.go.kr

자 시도하지만 결국 수정되지 않은 과거와 현실을 결말로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리드>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 타임머신은 그리드를 설치 가능하게 하고 인류를 지킨 구원의 장치이다. 동시에 인간에 의해 시간을 통제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인간을 통제하게 하는 기능은 이중적이다. <그리드>는 그리드와 타임머신이라는 과학 기술에 대한 극적 상상력으로 현실 세계를 재현하고 보호와 통제의 이중적 기능을 통해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문학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SF의 외삽적 가설이 <그리드>의 가상 세계에 실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라는 개연성을 부여한다면, 극적 상상력은 문제적 현실을 재현하면서 현실감을 부여한다. 이렇듯 <그리드>는 SF드라마에서 극적 리얼리티를 강화하며 그 위상을 높인 작품이다.

4. 나가며

과학 기술과 지식이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과학적 개연성을 기반으로 한 SF드라마 <그리드>는 현실을 재현하고 이를 통해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반영한다. 고도화된 과학 기술에 대한 극적 상상력이 SF의 가상 세계에 극적 리얼리티를 강화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SF드라마 <그리드>에 구현된 과학 기술 소재가 현시대의 고도화된 과학 기술을 배경으로 서사에 개연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태양풍이라는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은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등 일상적 재난 상황에 봉착한 현대인들에게 실제 현실에 일어날 법한 가능성을 인식하게 한다. 태양풍을 막는 방어막 그리드는 과학적 개연성을 수반한 과학 기술 소재로서 인류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창작된 <그리드>의 외삽적 가설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그리드 설치를 가능하게 한 타임머신은 SF에서 더 이상 '노

www.kci.go.kr

붐'의 효과로 활용되지 않는다. 타임머신은 현실에서 구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과학 기술이나 그 개연성으로 인해 SF의 외삽에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그리드>는 과학 기술의 이중성이 유발하는 문제적 현실을 재현하여 현실감을 형성한다. SF드라마 <그리드>가 현대 사회의 실상을 재현하며 극적 리얼리티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그리드와 타임머신은 태양풍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그리드를 통제하는 관리국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인간을 대상화한다. 또한 그리드 관리국 내부도 수평·수직으로 위계화된 중층적 권력 구조를 형상화한다. <그리드>는 '그리드'라는 고도의 과학 기술을 장악한 관리국의 외부와 내부에서 작동하며 사회 전체에 섬세하고 구조적으로 퍼져 있는 권력에 의한 배제와 통제를 조명한다. 그리드를 장악한 공권력이 편재된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부유층과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된 인간들의 삶을 통찰한다. 그리드 설치를 위해 미래에서 온 '유령' 역시 인간이다. <그리드>는 관리국과 정부가 '유령'이라고 대상화한 미래에서 온 인간을 다루는 방식에서 인간을 도구화하고 있는 현실의 윤리적 문제를 재현한다. 그리드와 타임머신은 보호와 구원의 장치이자 배제와 소외를 야기하는 통제의 장치이다. 그리드와 타임머신 장치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 권력 및 과학 기술과 결탁한 자본 권력의 외부와 내부에서 작동하는 통제된 사회를 재현하며 현실감을 더한다.

<그리드>에서 과학적 개연성이 시각적 효과를 통해 현실감을 강화하는 점도 장면을 통해 드러난다. <그리드>는 태양풍의 재난 상황과 그리드, 타임머신 장치에 대한 외삽적 가설을 스펙터클, 슬로모션과 롱 테이크 기법 등으로 시각화하고 그리드 관리국 외부와 내부의 분할된 공간에서 현대 사회의 위계화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는 수용자가 현실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데 효과적인 기법이다. <그리드>는 현실감을 확보한 외삽적 가설에 그리드와 타임머신 장치의 이중적 기능을 포착하여 현실을 재현하면서 극적 리얼리티를 강화하였다. 고도화된 현대의 과학기

www.kci.go.kr

술 사회에서 SF가 과학적 개연성을 확보할 때, 이에 대한 극적 상상력은 문학의 미학적 특성 및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드라마 <그리드>가 후속 이야기를 예고하면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기고 열린 결말로 종영한 것은 플롯의 완결성 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SF드라마로서 과학적 개연성을 수반한 외삽적 가설이 현실감을 확보하며 극적 리얼리티를 강화하고 있는 점은 <그리드>의 성취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수연 극본, 리건 연출, SF드라마 〈그리드〉 10부작, 디즈니+방영, 2022.

2. 단행본

강성률, 『영화 색채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고장원, 『SF란 무엇인가?』, 부크크, 2015.
장정희, 『SF 장르의 이해』, 동인, 2016.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신서, 2020.
_____, 심세광 옮김,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세릴 빈트, 전행선 옮김, 『에스에프에스프리 - 우리가 SF를 읽을 때 생각하는 것들』, arte, 2019.
자크 라캉, 맹정현・이수현 옮김,『세미나 11』, 자크-알랭 밀레 편, 새물결, 2008.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Suvin, Darko, *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On the Poetics and History of a Literary Genre*, New Haven: Yale UP, 1979.

3. 논문 및 기타

김종무, 「카메라 앵글의 위치 변화에 따른 감성 선호도 변화」, 『디자인융복합연구』 9권1호, 디자인융복합학회, 2010.
김홍대・윤석진, 「과학 기술의 상상적 구현과 표상으로서의 SF 콘텐츠」,『인문학연구』 127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노대원, 「SF의 장르 특성과 융합적 문학교육」, 『영주어문』 제42집, 영주어문학회, 2019.
복도훈, 「SF, 타자성을 탐구하는 사고실험의 미학: 스타니스와프 렘의 SF 『솔라리스』(1961)를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통권27호,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2017.
신다슬, 「한국 SF영화의 세계관과 과학적 개연성 -〈승리호〉와 〈정이〉를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3.

www.kci.go.kr

_____, 「불안정한 세계에서 능동적 삶의 가능성 모색하기-SF드라마 <만신>을 중심으로」, 『비평문학』제 82호, 한국비평문학회, 2021.

안신영・신서유, 「SF드라마 <그리드>에 나타난 욕망 분석-미장센 분석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42권,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3.

연효숙, 「푸코의 바깥의 공간과 헤테로토피아 공동체」,『시대와 철학』통권 99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2, 106쪽.

윤석진, 「TV드라마의 현실성(reality) 확보 방식 고찰-KBS 미니시리즈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제21집, 한국극예술학회, 2005.

이다운, 「일상의 파국과 상상된 재난-시네마틱드라마 <SF8>연구」, 『어문론집』, 중앙어문학회, 2021.

이승길, 「성과주의 인사와 근로계약에 대한 연구」,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이승조, 「방송 영상물에 사용된 슬로모션이 수용자의 정서 및 인지 반응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통권 22-4호, 한국방송학회, 2008.

이지용, 「한국 SF의 장르적 특징과 의의—근대화에 대한 프로파간다부터 포스트휴먼 담론까지」,『대중서사연구』 통권50호, 대중서사학회, 2019.

Acuna, M.H., et al., “Magnetic Field and Plasma Observations at Mars: Initial Results of the Mars Global Surveyor Mission”, *Science*, 1998.

Deutsch, David, Lockwood, Michael, “The Quantum Physics of Time Travel”, *Scientific American,* 1994.03.

Einstein, A. Rosen, N., “The Particle Problem in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Physical Review*, Volume 48, 1935.07.

Fox, Karen C., “Solar Flares: What Does It Take to Be X-Class?”, 2011. https://svs.gsfc.nasa.gov/10833 (최종검색일 : 2023.12.18.)

Green, J.L., et al., “A Future Mars Environment for Science and Exploration”, *Planetary Science Vision 2050 Workshop*, article no. 1989, 2017.

Sanders, Jacob T., et al., “Radiation-induced DNA damage and repair effects on 3D genome organization”, *Nature Communications*, 2020.

Thorn, Kip S., Morris, Michael S., “Wormholes in spacetime and their use for interstellar travel: A tool for teaching general relativity”, *American Journal of Physics*, Volume 56, 1988.05.

www.kci.go.kr

Abstract

Extrapolation hypothesis and dramatic reality in SF drama *Grid*

Park Mikyoung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science fiction drama *Grid* reproduces the real world and reflects the absurdity of reality, thereby reinforcing dramatic reality. Accordingly, the main factors that strengthen dramatic reality in *Grid* were analyzed. First, we looked at the fact that the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of the present era allows us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that the virtual world of science fiction, accompanied by scientific probability, 'can happen in the real world.' In *Grid,* the scientific plausibility of grid (artificial magnetic field) and time machine, which are science and technology materials, is examined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disaster situation of solar wind, a natural phenomenon, and based on this, it is established that *Grid*'s extrapolative hypothesis is persuasive. The fact that *Grid* uses visual techniques to create a sense of reality was also taken as a subject of analysis.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grid installed to protect humanity from the threat of solar wind in *Grid* and the time machine device that made the installation of the grid possible give persuasiveness to the extrapolative hypothesis of *Grid* due to scientific probability. there was. The dramatic imagination that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ices such as the grid and time machine that protect humanity function dually by the power that seeks to control humans by taking over them reproduced reality and reflected the negativity of reality. In this process,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 sense of reality was being strengthened through visual production. In conclusion, *Grid* showed that it differentiates itself as science fiction by creating a sense of reality and ensuring dramatic reality based on extrapolated hypotheses with scientific

www.kci.go.kr

probability about a future society that has not yet arrived.

key words : control humans, dramatic reality, extrapolated hypothesis, *Grid*, protect humanity, time machine.

접 수 일: 2023년 11월 12일
심사기간: 2023년 11월 16일~2023년 12월 8일
게재결정: 2023년 12월 9일

www.kci.go.kr